

# 소형 SUV 최강자 귀환...하이브리드 장착 상품성 극대화

기아 '디올 뉴 셀토스' 시승기

길어진 전장·휠베이스 역동적 비율 자랑  
동급 최고 공간감과 압도적 연비 효율성  
생애 첫 차부터 패밀리카까지 선택 다양

기아의 대표 소형 SUV '셀토스'가 6년 만에 2세대 완전변경 모델인 '디올 뉴 셀토스'로 돌아왔다.

2019년 출시 이후 국내 소형 SUV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셀토스는 이번 풀체인지지를 통해 차급을 뛰어넘는 공간감과 압도적인 연비 효율성을 갖추며 다시 한번 시장 석권에 나선다.

동급 최강인 셀토스의 진면목을 체험하기 위해 최근 시승에 나섰다. 시승 코스는 기아 오토랜드광주에서 출발해 고창읍성 일원으로 왕복 80분가량 (약 90km) 소요됐다.

신형 셀토스의 첫인상은 한 체급 위를 연상케 하는 '당당함'이다.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픈핏 유나이티드'를 반영해 전면부에는 웅장한 라디에이터 그릴과 입체적인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적용했다.

측면은 기존보다 길어진 전장(4,430mm)과 휠베이스(2,690mm) 덕분에 한층 역동적인 비율을 자랑했다.



최근 열린 '디올 뉴 셀토스' 시승 행사에서 고창읍성 일원 가로수길에 줄지어 있는 셀토스 차량과 내부 사진.

〈기아 오토랜드광주 제공〉



실내는 하이테크한 감성이 물씬 풍겼다. 12.3인치 클러스터와 5인치 공조,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연결한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는 시각적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휠베이스가 60mm 늘어나면서 2열 레그룸이 25mm 확장됐는데, 이는 성인 남성이 앉아도 부족함 없는 동급

최고 수준의 거주성을 제공했다.

이번 신형의 핵심은 새롭게 추가된 1.6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실제 주행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은 최고 출력 141마력의 부드러운 가속감

을 선보였다. 복합연비 19.5km/ℓ (16인치 휠 기준)를 구현해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주행 중 체감되는 정숙성도 뛰어났다. 윈드실드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와 흡차음재를 보강해 고속 주행 시 풍절음과 노면 소음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또한 내비게이션 정보를 바탕으로 회생 제동량을 스스로 조절하는 '스마트 회생 제동 3.0'은 가감속이 빈번한 도심 주행에서 운전의 피로도를 낮췄다.

안전 및 편의 사양은 상급 모델인 쏠렌토가 부럽지 않은 수준이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2(FCA 2)와 고속도로 주행 보조 2(HDA 2)를 적용해 정교한 반자율주행 성능을 구현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고 시동을 걸 수 있는 '디지털 키 2', 차량 내 전력을 외부로 공급하는 '실내 V2L' 등은 소형 SUV의 활용도를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장시켰다.

디올 뉴 셀토스는 소형 SUV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공간'과 '디자인'을 강화하는 동시에 '하이브리드'라는 강력한 무기를 더했다. 판매 가격은 가솔린 터보 2천477만원, 하이브리드 2천88만원 (세제혜택 반영)부터다.

가격 대비 성능과 사양을 고려할 때, 생애 첫 차를 고민하는 사회초년생부터 효율적인 패밀리카를 찾는 고객까지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채만 기자

## 현대차그룹, 2월 판매 '주춤'...기아, 전기차 월간 1만대 첫 돌파

‘조업일 부족’ 현대차 전년비 17.8% 감소  
글로벌 수요 위축...해외 시장도 2.3% ↓  
PV5·EV3 등 기아 전기차 판매 급증 견인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 2월 설 연휴에 따른 조업 일수 및 영업일수 감소의 영향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나란히 역성장장을 기록했다.

양사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전체 판매량이 줄어들며 고전했으나, 기아는 월간 전기차 판매량에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저력을 증명했다.

◇현대차, 조업 단축 여파 국내 판매 급감

현대자동차는 2026년 2월 한 달간 국내 4만7천8대, 해외 2만9천200대 등 전 세계 시장에서 총 3만6천528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글로벌 전체

판매량이 5.1% 감소한 수치다. 특히 국내 시장의 타격이 컸다. 설 연휴로 인한 영업일수 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며 전년 대비 17.8% 감소했다.

세단 부문에서는 그랜저 3천933대, 쏘나타 4천436대, 아반떼 3천628대 등 총 1만3천568대가 팔렸다. RV (레저용 차량) 부문은 팰리세이드 (3천81대), 싼타페 (2천679대), 투싼 (2천972대), 코나 (2천876대) 등 총 1만8천756대의 실적을 올리며 세단 대비 견조한 수요를 유지했다.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는 G80 2천247대, GV80 1천689대, GV70 2천206대 등 총 6천942대가 판매되며 브랜드 파워를 이어갔다.

해외 시장 역시 전년 동월 대비 2.3% 줄어든 2만5천9천520대에 그치며 고금리와 경기 침체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의 여파를 피해 가지 못했다.

◇기아, 전기차 '월 1만대' 시대 개막  
기아는 2026년 2월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대비 28% 감소한 2만7천401대를 판매했다. 국내 판매는 8.7%, 해외 판매는 1.5% 각각 줄어들었으나 현대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적었다.

이번 실적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전기차(EV) 부문의 약진이다.

기아의 2월 전기차 판매량은 1만4천488대로, 사상 최초로 월간 판매 1만대를 돌파했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2023년 2월(7천686대)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이다.

실적의 주역은 목적기반모빌리티(PBV)인 'PV5'와 대중형 전기차 'EV3'였다. PV5는 3천967대가 팔리며 전기차 라인업 중 최대 판매를 기록했고, EV3(3천469대)와 EV5(2천524대)가 뒤를 이으며 기아의 전동화 전략이 본격화되어 있음을 입증했다.

일반 차종 중에서는 쏠렌토가 7천688대로 국내 판매 1위를 지켰으며, 글로벌 시장 전체로는 스포티지가 4만7천81대로 가장 많이 팔렸다.

◇“친환경·신차 라인업 확대 판매 회복 총력”  
현대차와 기아 양사 관계자는 공통적으로 “2월은 설 연휴라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판매 가능일수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현대차는 향후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와 친환경차 비중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아 역시 셀토스 하이브리드와 신규 PBV 모델인 PV5, 보급형 전기차 EV5 등 강력한 신차 라인업을 앞세워 판매 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업 일수가 정상화되는 3월부터 본격적인 판매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채만 기자

### 현대차·기아 '모베드 얼라이언스' 출범

현대자동차 기아가 고객 맞춤형 로보틱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모베드를 중심으로 다자간 협력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6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에 참가해 '모베드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고, 모베드의 국내 판매를 본격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단순 하드웨어 도입을 넘어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솔루션을 원하는 최근 로봇 시장의 수요에 발맞춰 기획했다.

얼라이언스의 핵심인 모베드는 혁신적인 바퀴 구동 시스템을 갖춘 현대차·기아의 신개념 소형 모바일 플랫폼이다. 4개의 독립구동 DnL (Drive-and-Lift)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한 편심 구조를 갖춰 지면 변화 대응 능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산업별 수요에 맞춰 다양한 '탑 모듈'을 유연하게 결합할 수 있는 뛰어난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다. /임채만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원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